(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96 1981년12월1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December 15, 1981

EAST ASIAN LIBRARY DEC 17 1981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폴랜드 전국에 계엄령!

노조간부 · 정치인 속속체포

발렌싸와 협상중, 미국 · 교황청 사태주시

(바르사바) 폴랜드 공산당서기장이며 국방상인 보이체크 · 아루젤스키 수상은 13일 새벽 전국방송을 통해 국가구제군사위원회(Militasy Council for National Salvation)가 국가통치권을 장악 폴랜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 80년8월 솔리 대리티 창설 이후 16개월간 수차례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던 폴랜드 정국은 가장 큰 고비에 들어갔다. 동유럽공산권국가중 유일한 자유독립노조인 솔리대리티와의 대립에 위협을 느낀 공산당은 솔리대리티노조 본격거세작전에 돌입, 총파업을 위협하던 노조지도자들을 감금하고, 동조파업이나 작업거부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강경히 선언했다.

계엄하의 국가구제 위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 하고, 국내외 언론및 각 공항과 주요간선도로를 폐쇄. 폴랜드의 소식은 전세계에대해 두절됐다.

계엄정부는 또 대도시의 공공건물및 공장을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 삼엄한 경비를 폈으며, 저항, 야유하는 일부 산발적 데모대들을 향해 물세례를 퍼 부었다.

현재 체포된 과격노조지도자및 전 정부고위지도자수는 전국적으로 약천명정도인 것으로 전해지나 공식발표는 없으며, 체포된 인사중에 에드워드· 기에렉 전 폴랜드공산당서기장및 표토르·야로세박 전 수상도 포함됐다.

렉·발렌싸 솔리대리티지도자는 계엄령 발표직후 협상을 위해 본거지인 그댄스크에서 바르샤바로 긴급 송치되었으며 체포, 감금상태에 있지는 않다고 예르지·우르반 정부대변인이 발표했다.

폴랜드가톨릭 죠셉·글램프 추기경은 13일 국영방송을 통하여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생명을 포기하진 마시오. 인간생명의 가치를 크게 생각해주는 시대가 아니오"라고 전폴랜 드국민에게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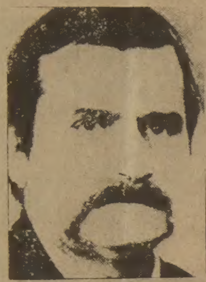
한편 레이건 미대통령은 14일 바티칸의 교황 요한바오로2세에 긴급전화를 걸어 7분간 통화, 교황의 조국인 폴랜드의 사태를예의 주시하며 우려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위기에 처한 그의 조국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바티칸에서 교황의 설교를 듣고 있던 폴랜드인들은 비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꼈다.

소련은 야루젤스키 폴랜드 수상의 이번 조처를 무정부상태의 혼란을 막는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지했으나 폴랜드에 주둔하고있는 소련군이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솔리대리티 소식통에 따르면 바르샤니에서한 3천명의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다.

이번 체포망에서 벗어난 일단의 솔리대리티 지도자들은 지금 범국가적 파업위원회를 결성중이라며 전국적 총파업만이 정부의계엄조처에 맞설 수 있는 적절한 조처라고 강경입장을 취했다.



◇렉·발렌싸

폴랜드군부는 계엄령 선포 수시간전인 12일밤 자정 그댄스크의 솔리대리티 본부를 급습, 문서와 통신기등 기재를 압수하고 주위를 무장 포위했다.

전세계 폴랜드인 통분

토론토서 1300명 데모

폴랜드 공산당 정부의계엄령선포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폴랜드인들을 경악과 통분에 빠뜨렸다.

토론토에서도 13일 2천5백명이 넘는 시위자 들이 굳게 닫혀진 폴랜드영사관문밖에서 폴랜드정부가 솔리대리티자유노조를 붕괴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는 침묵의 시위를 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폴리쉬부부는 "우리가 이곳에 안전하게 산다고 우리조국의 어려운 사태에 수동적으로 무관심할 수 없다. 폴랜드국민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 적극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부는 2년전 캐나다로 이민온 후 폴리쉬· 캐네디언 행동대(Polish Canadian Action Group)대원으로 일해왔다.

침묵의 시위에는 소련과 폴랜드의 처사를 비난하는 구호와 노래도 섞였다.

눈에 눈물이 가득한 몇몇 여성들은 "우리가 살아있는한 조국 폴랜드는 영원하리"라는 폴랜드국가를 불렀으며 한 남성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15세기 폴리쉬성가 "폴랜드인의 피의 댓가를 위해"를불렀다. 이 노래는 지금 비록 폴랜드에서 금지되었으나 자유를 갈망하는 폴랜드인들의 애가로 되었다.

폴리쉬·캐네디언 총협의회(Polish Canadian Congress)의 실행이사이며 웨스턴온타리오 대학 사학교수인 안·페드로비츠는 폴랜드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소련의 무력간섭은 무역, 기술및 동서양진영 국민들간의 자유교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계엄령선포 수시간전 12일 자정 폴랜드군이 솔리대리티 집회장을 포위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잡아갔다. 폴랜드군은 전국의 시가를 차단, 통행인을 신분을 일일이 심문했다.

예산안 일부 수정용의

맥재무 기업인들 비난 일자

(오타와)앨런·맥케큰 연방재무상은 10일 기업인들과 일련의회담을 가진후 새해들어 예산안을 일부수정,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들것으로 알려졌다.

맥케큰 재무상은 경제분석가들로부터 지난 11월12일 발표된 연방예산안이침체일로에 있는 캐나다경제를 자극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예산이라는 비판을받은데 이어 취해진 발표이다.

예산안에 반발하는 캐나다 경제전문가중 하나인죤·불록 캐나다 독립기업연맹회장은 10일밤 맥케큰장관과 면담한뒤 장관이"잘못을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불록회장에 의하면 기업인들의 견해를 반영하기위해 독립기업연맹산하 6 만 5천의 기업주들에 예산안 안내책자를 배부한 후 각 기업주들의 의견을 청취, 요약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統一敎지도자 2명 法廷모독죄를 부과

〈샌프란시스코-UPI〉 문선명씨가 이끄는 통일교의 두 지도자가 뉴질랜드 타란키출신 메리·리·홀(22세)여인을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았다고 법정모독죄 죄목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됐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아이라 브라운판사는 25일 통일교 지도자 모세·둘스트씨와 북가주 통일교 책임자 매류·모리슨씨에게 홀여인을 법정에 출두시키라는 법원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정모독죄를 부과했다.

케네디議員 암살범 서한兄도 自殺기도

〈산가브리엘-UPI〉 로버트 케네디상원의원을 암살한 서한의 형 샤리프 서한(48)이 약물을 복용한후 자살을 기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돼 생명을 건졌다.

암살자 서한(37)은 69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72년 캘리포녀주의 사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형을 면한채 복역중이며 3년후에는 가석방 될수도 있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사 고〉

= 은세계에의 초대 =

초보자를 위한 스키 강습회

호수의나라, 백설의 왕국 캐나다의 겨울은스키와 낭만의 계절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설인(雪人)의 양지로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를바랍니다.

때 : 82년1월28일(목)~30일(토)2박3일
곳 : 퀘벡주에서 가장 큰 명산 MT. 세넹
회비 : $160(1인당)※개인별로가면 $280소요
※대절버스(그레이 하운드)
—콘도미니움에서 숙식
—2일간 케이블카 무료제공
—2일간 스키 무료교습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
정 원 : 신청(선착순)35명
신청처 : 한국일보사 광고부(533-2361, 2)
브랜돈 스포츠사(이건영 598-3732)

주최 : 한국일보 - 토론토
Brandon스포츠사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한국일보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RALPH LEVINE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謹賀新年

과년중에 베풀어주신 교민여러분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과
희망의 새해를 맞으시기 기원합니다.

아리랑하우스 대표및 종업원 일동 근배

※12월26일과 1월1일은 휴업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토론토대학 이민법위반, 입건

외국인교수 고용, 학생들은 탄원서제출

로이드 액쉬디 이민장관은 토론토대학이 이민, 고용법(캐나다인 우선고용원칙)에 위반, 이민국에 입건 됐다고 9일 발표했다.

토론토대학은 노동허가를 받지않은 스코트랜드출신의 앤드류·로저슨 생물학교수를 고용, 지난9월부터 강의를 맡겼었다.

토론토대학은 최초로 이민법을 위반, 외국교수를고용한 대학이 됐다.

금년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면 캐나다 대학들은 교수를 채용할때 캐나다내에서 지칠때까지 적격자를 찾아본다음 없으면 외국인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액쉬디 장관은 토론토대학이 로저스 교수를 두달동안이나 불법고용한 후에야 노동허가원을 이민국에 제출한 사실에 놀랐다고말했다.

대학본부 인사담당 데비드·쏙씨는 토론토대학 에린데일 캠퍼스에 생물학교수가 지난학기초 갑자기사임함으로써 다른 캐나다교수를 찾아볼만한 시간적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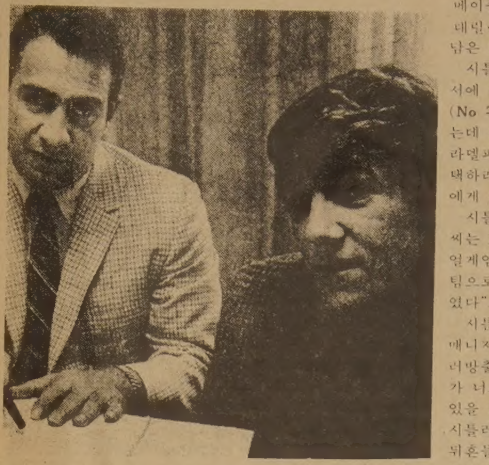
로저스 교수는 이남시토론토대학의 연구원으로 있었다.

당시 생물학교수직을 지원하는 사람은 8사람이 있었으나 이들은 박사학위를 갖고있지 않아 대학임용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고용하지 못했다고 쏙씨는 말했다.

토론토대학 에린데일 캠퍼스 폴·폭스학장은 약30명의 학생들이 로저스교수가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액쉬디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 정부가 로저스 교수에게 노동허가를 주도록 청원했다고 밝혔다.

시틀러 토론토와 결별

미네소타와 절충중



◇1970년 메이플립스 계약할 당시의 18살의 시틀러와 당시 감독 짐·그레고리

메이플·립스의 주장선수 대릴·시틀러가 12년간 몸담은 토론토를 떠날것같다.

시틀러는 립스와의 계약서에 명시돼있던 무방출(No Trad)조항을 파기하는데 동의, 미네소타와 필라델피아 두팀중 하나를선택하라고 12일 립스간부진에게 통고했다.

시틀러의 변호사 이글슨씨는 12일 있은 대 몬트리얼게임이 시틀러가 토론토팀으로 가진 마지막 경기였다"고 말했다.

시틀러는 3년전 립스의 매니저 펀치·임락이 시틀러방출을 시도했을때 "내가 너보다는 립스에 오래있을 것이다"며 거부했다. 시틀러의 예언대로 립스를 뒤흔들었던 임락의 시대는 끝이나 금년부터 립스에서 물러났다.

시틀러는 12일 메이플립스 가든에서 열린 몬트리얼과의 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으나 토론토팀은 경기에서 6:2로 패했다.

작년도 스탠리컵 결승까지 올랐던 미네소타는 시틀러에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왔다 미네소타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된팀으로 시틀러 같은 노장선수의 노련함이 요구된다.

시틀러의 계약서중 No-trad 조항하나 없애는데 50만달러가 든다는 설이있다.

신 랑 : 전용설씨 장남 전상천군
신 부 : 차문매여사 3녀 지명옥양
일시 : 12월 19일(土)하오 1시
장 소 : 토론토 오순절 장로 교회
주 례 : 장세택 목사
피로연 : 교회 친교실

◇내셔널 X마스 트리 — 미국 백악관과 워싱턴기념탑 사이에 해마다 세워지는 크리스 마스 트리가 7일 세워졌다. 점화식을 17일 예정

<법률소개>

Legally Speaking... a CLEO publication

들치기·절도의 형량

한달전 교포P여인은 미시사가소재 스퀘어I 쇼핑센터안에 있는 「부트드럭마트」엘 8살과 1년4개월된 아들두명을 데리고 들어섰다.

드럭마트안에 있는 약국에서 고원이 있는 아기약을 처방받고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을 때 어린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울음이 그칠기세를 보이지 않자, P여인은 사려고 골라놨던「로숀」과「바셀린」을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유아용 카트에 앉아있는 어린아기에게 주었다.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쇼핑한후 P여인은 캐쉬 카운터로 가 고른물건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캐쉬어가 카운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아기에게 준「로숀」과「바셀린」은 까마득잊은채.

이때 약사가 캐쉬어에게 오더니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거렸다. 이때까지도 P여인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기보단 또다시 큰 소리로 울어대는 어린 아기 때문에당황한 나머지 물건값을 빨리 치르고 나갈 생각만 머리에 꽉차 있었다.

약사의 소곤대는 말을듣고 캐쉬어는 아무일 없다는듯 P여인이 캐쉬대앞에 놓은 물건만 카운트하였다.

물건값을 치르고 카트를 밀며 문을 나서는순간 경비원이 P여인을 붙잡았다. 당황하여 항변하는 P여인에게 경비원은 그녀의 1년4개월된 어린 아기가 가지고 노는「로숀」과「바셀린」을 가리켰다.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며 이유를 들어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한수더떠 전에는 어디서 물건을 훔쳤냐고 P여인을 조롱했다.

경찰이오고, 경찰서에 간 P여인은 조서를 꾸미고지문까지 찍었다. 비록 아이에게 물건을 준것을 확인하지못한 일차적인 잘못은 P여인에게 있으나, 고의적인 인상이 풍기리만치 P여인을 궁지에 몰아넣은경비원과 약사가 미웠다.

이들은 전날에도 한국인 남자2명이 물건가격을 바꿔치기 하려다 걸렸다고P여인에게 말하며, 한국인은 모두「도둑놈」이라는듯 P여인을 째려보았다.

P여인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변호사를 고용, 내년4월에 있을 재판에 대비했다. $6.78밖에 되지않는 로숀과 바셀린이 몰고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 × ×

캐나다는 큰 백화점으로부터 조그만 구멍가게까지「들치기」(Shoplifting) 가 성행, 1년에 들치기때문에 입는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캐나다의 형법은 들치기의 심각성을 중시하고 용어 자체도「절도」(Theft)로 사용하고 있다.

들치기로 기소된 사람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어떤 벌을받을건가?" 다. 형량은 여러가지 요소에따라 달라진다. 다음에 몇가지 요소를 든다.

절 도

절도(들치기)는형법위반으로 검사(Crown Atorney)가 기소, 재판을 할 것인가, 약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만약 검사가 약식절차를 선택할 경우, 최고형으로 벌금 $500이나 6개월징역, 혹은 양쪽 다 받을 수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절차를 선택할 경우, 최고형은 수년간의 징역이 될 수 있다.

종전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 검사는 대부분 약식절차를 택했다. 그러나 들치기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요즈음에는 초범이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도둑맞은 물건가격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고, 도둑맞은 물건가격이 $200이상되면, 최고형은 10년징역이다. 물건가격이 $200이나 이하면 피고의 형량은 2년이 된다.

피고의 인격과 명성

법원은 언제나 최고형량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전에 전과가 없거나 장래에 범죄를 행할 소지가 보이지않는 사람은 판사에게 형면제, 판결보류,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이나 징역대신 벌금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의 연령

지금까지는 피고가 미성년자(16세이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전개해 왔다. 범법자가 미성년자인경우「미성년 범죄법」(Juvenile Delinquents Act)에의해 형을 내린다.

미성년 범죄법은 미성년자를 처벌하려는 것보다 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일단 미성년 범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 법원은 문제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소셜·워커와 긴밀한 접촉을 갖고, 범죄의 원인을 공동으로 조사, 미성년 범죄자를 선도하고, 갱생의 길로 이끄는데 주력한다.

미성년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량은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법원은 최종판결을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범법할 경우 형 적용을 시키겠다는 경고, 벌금 $25, 직업학교에 보내거나 부모의 보호아래 두는등 여러가지조처를 취할 수 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소련에 정보파는 간첩들

일본、알면서도 손 못대

미군·중공관계를 주로 제보 북해도 네무로에 6개그룹

황금어장 어로허용 미끼로 포섭돼

蘇海域서 넘겨줘 物證잡기도 어려워

소련비밀경찰(KGB)은 일본북부 북해도의 네무로에서 수십명의 일본인들을 정보원으로 포섭, 이들을 6개그룹으로 조직하여 일본, 미국및 중공에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고 일본보안담당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이들은 KGB에 포섭된 일본인들과 이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는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나 일본의 반전위법에 따라 정보의 타국유출을 막는 법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동쪽끝 노사후곶어귀에 위치한 인구4만4천의 외진 어촌인 네무로시의 다찌바나·구니오 경찰국장은 일본에는 방첩법이 없기때문에 KGB에 포섭된 일본인정보원들을 방첩법위반자들로 몰아붙일수 없음에도 불구, 이들을 스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보안담당 관리들은 이같은 첩보행위를 처벌할 적절한 보안관계법이 없는 관계로 이 일본인 첩보자들을 관세법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법규들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곤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이 네무로항에서육안으로도보이는 거리에 위치한 소련장악하의 무릴열도에서 또는 해상에서 소련측에 정보를 넘겨주기 때문에 일본경찰측이 이 제보자들의 범법행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다찌바나국장은 그가 20년동안 이 일본스파이들을 다루어 왔다고 말하면서 네무로시 외부에서 암약하는 6명의 거물급 제보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5~10명의 하수인을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파이들이 첩보선으로 불려지고있는 어선들을 타고 제보활동을 펴고있다고 밝히면서 이 어선들의 선장들이 제보자이며 다른 선원들은 제보자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현재 네무로에는 이러한 선박이 60척이나 된다고 말했다.

일본해안경비대 네무로분유대대장 히메노·히로시씨는 제보선들이 네무로에서 약19km밖에 떨어지지않은 구나시리도의 후루까마호항이나 시꼬딴도의 아나마만에서 또는 그부근의 해상에서 소련측에 정보를 넘겨준다고 밝혔다.

구나시리와 시꼬딴및 그 이웃의 하보마이, 에또로후등 4개섬들은 2차대전말이래 소련의 장악하에 있으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 양국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섬들의 반환을 소련이 거부하고있어 일, 소 양국간 전쟁상태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소련은 또한 3년전 이 섬들을 군사요새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 소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바있다.

일본보안관리들은 소련이 이섬들에 약1만2천명의 정규군과 약5천명의 KGB요원들을 주둔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12척의 무장초계정들을 배치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섬들을 반환받고자하는 이유중 하나는 이섬들이 소련 캄차카반도 주변을 따라 남하하는 한류와 북상하는 온류가 교차하는 해역에 둘러싸여있어 이지역이 세계최대 어장중 하나가 되고 있기때문이다.

히메노씨는 소련인들이 일본인들을 제보자로 포섭하는데에는 (1)일본어부들이 스스로 소련인들에게 접근, 소련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대신 소련의 어장에 들어가 어로작업을 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경우와 (2)소련해역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어부들에게 소련당국이 스스로 접근하는경우, 등 2가지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독신청 : 533·2361

해밀톤 한인회 소식

송년파티를 다음과 같이 열고자 하오니 해밀톤지구 교민은 물론 관계되는 분들도 꼭 오셔서 우리 가족적인 해밀톤지구 한인회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 자 : 12월26일(토요일)
장 소 : 204 Park St. N. HamiltonOnt.(Cyril Church)

특별사항 : 중국식 디너를 마련했고 해밀톤지구 한인회 자체의 band부가 처녀출연를 하게 됩니다.
진행순서 : 오후8시~9시—칵테일
오후9시~10시—82년도 회장선출
오후10시~11시—디너
밤11시~새벽2시—각종 오락과 댄싱
연 락 처 : 524-1273, 528-4654

해밀톤 한인회 회장 조용구

송춘희특별출연

뉴-서울

529 BLOOR ST W.TOR.
(오리엔탈파레스2층)
전화 : 533-2500

아쉬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그간 교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저 유명한 민요가수 송춘희양을 초청하고 12월28일부터 신년 1월3일까지(7일간)뉴-서울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이 기간중 연말잔치, 신년잔치등 많이 이용하시고 즐거운시간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권순근악단
아리랑무용단
매일출연

영업시간
7시부터새벽1시까지
일요일영업 7시~10시

송년잔치예약

12월31일 송년잔치(NEW YEAR'S EVE CELEBRATiON)에 한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읍니다.

가 격 : 1인당 $25.—
파티시간 : 7시~1시까지
예약전화 : 낮(533-3545)
밤(533-1500)
식사제공(버훼—)
송춘희쇼—
파티에 필요한 모자, 은관, 피리등 제공함.

밤낮없는 초비상 지하요새

동굴도시「북미 우주방공사령부」 (2)

"韓國에도 監視센터"

NORAD관계관과 本社특파원 一問一答

북미우주방공사령부작전관 토마스·브랜트 준장은 10일 본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이 미국을 미사일공격하는데는 30분걸리며 미국은 이 시간안에 반격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랜트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토마스브랜트 준장.

불모山선 3萬마일上空 의자만한 物體도 식별
大邱엔 어두운곳서도 探知가능한 最新시스템

—NORAD의 임무는.

▲소련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와 인공위성탐지 및 미항공방위등이다.

지난해 약5백개의 미사일과 인공위성이 전세계서 발사됐는데 이숫자에는 소련뿐아니라 우방국에서 발사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중 80%는 소련서 발사한 것으로 소련은 1년에 1백개이상의 인공위성과 3~4개의 대륙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NORAD와 대통령과의 비상시 연락방법은. NORAD와 블랙박스는 직접 연결되는가.

▲통신망은 대통령, 국방성, 국무성등 전관계기관과 연결돼 있다. 보통때는 워싱턴의 군지휘센터와 먼저 연결 이곳서 대통령과 연락된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NORAD사령관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수 있다. 블랙박스와는 직접 연결된 통신망이 없다.

—핵전발발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다. 핵전력 및 군비증강만이 핵전의 가능성을 막을수 있다.

—핵전발발시 피해정도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핵전경험이란 2차대전시 일본에 투하된 원폭뿐이나 핵전이 발발하면 지구상에서 피할곳은 아무곳도 없다.

—소련도 NORAD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곳에 집중돼 있는것이 아니라 분산돼 있는것이 특징이다. 여기엔 ICBM과 개스전에 대한 경보장치등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선 우리가 훨씬 우수하다.

—다른 나라에도 이와같은 체제가 있는가.

▲없다.

—만약 NORAD에서 착오로 소련에 핵공격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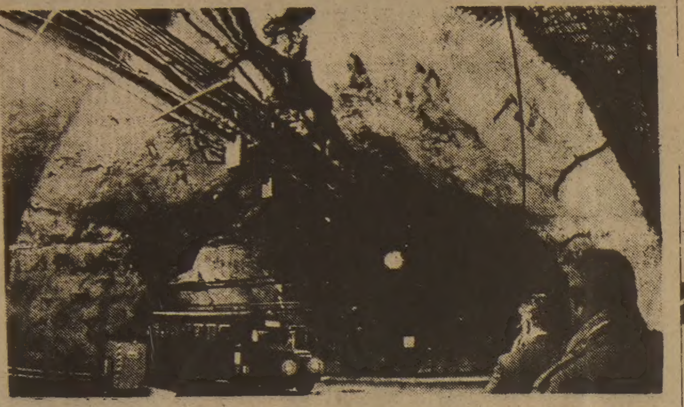
▲그럴수가 없다. 공격의 최종판단은 컴퓨터가 아닌 분석관이 하고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실수는 물론 있다. 특히 지진이 났을때 레이다의 실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한 빠른시간내 재반복검사해 최종판단을 내린다.

—한국에도 불모산과 대구에 인공위성감시센터가 있다는데.

▲그렇다. 불모산의 것은 강력한 것으로 3만마일 상공의 의자만한 물체도 식별할수 있고 대구의 것은 어두운데서도 탐지가 가능하다. 이들은 최신시스템으로 사진촬영을 하면 중간절차없이 직접 컴퓨터에 연결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김영석기자〉



◆지하요새의 위용—상상력을 넘는 북미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내부는 사방 30여피트 크기, 총길으로 맨은동굴로 연결돼있다. 핵미사일의 공격의 진동에 대비한 이 지하봉로는 1백11만개의 쇠못이 철망과 연결되어있으며 비상시의 경우 30일간 외부

◆새봄의 모드—10일 뉴욕의 한 패션 쇼에서 선보인 새봄의 여성 모두 두가지.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그다음 그는 끝없는 지역을 정처없이 전진해 가면 그는 이사람의 형태로 세워놓은 비석이 보이는한자기가 지나온 지역은 잊어먹지않게 된다. 그래서 비석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면 그는 잠시 멈춰서 또다른 이누콕을 세웠다. 그리고 그의 여행이 끝나서 다시 돌아오기전 더이상 이 비석들이 필요 없을때까지 계속해서 세워놓았다. 이 누콕은 도로표시가 아니고 우리백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한정된 마음으로는 한없이 넓은공간의 위협을 완강하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수호신 역할을 했던 것이다.

카네투아산에서 이것들을 내려다 보고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안을 받고있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세사람은 수많은이누콕이 움직이지 않는 보초병처럼 솟아있는 앙쿠니들녘을 말없이 한동안 내려다 보았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우리 밑에 호수물이 면경처럼 잔잔해지자 오호토는 침묵을 깨트리며 "바로 이곳이요." 하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 아버지의 캠프가 있던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로 걸어오고 또 지난 2년전에돌아가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 앤디와 나는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감은 들어 맞았다.

산을 내려가서 카네투아만을 배로 건너가서 북쪽 연안에다 우리는 각자 텐트를 쳤다. 앤디와 나는매우 지쳐서 피로에 겹쳐 있었지만 그날밤 우리는 편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날저녁 오호토는 죽은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애달픈 노래를 부르며 캄캄한 밤을 밖에 앉아서 새우는 바람에 우리도 뜬눈으로새우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우리들의 텐트는 거센 바람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날밤의 애상에 젖어있던 마음은 사라졌다. 나는 텐트밖으로 나와 눈부신 햇볕에 드러나고있는 넓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다.

북쪽으로 나무가 없는웅장한 산들이 약간 푸른색이 감도는 하늘 높이 뻗려올라간듯 버티고 있었고바람이 계곡과 멀리 산마루를 휩쓸고 지나갈때는 바위의 이끼와 푸른 잡초의 신록의 유연한 빛깔이 생동감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바람은 이땅에 생명감을 더해 주는것 같았지만 호수는 그저 쓸쓸해 보이기만 했다.

우리 발밑에 있는 앙쿠니 호수의 맑은 물이 바람에 파도를 일구며 희미하게 보이는 남쪽 연변으로 밀려갔다.

편편하게 부풀어오른 육지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았고 낮은 언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계곡 사이에는 몇그루의 작은 전나무들이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30cm길이도 되어보이지 않았다. 이 보잘것 없는 나무들은 위를 향하여 힘들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지만 바람결에 숨바꼭질 하듯이 언덕에 숨어버리곤 했다.

바람은 이땅의 주인처럼 거침없이 불어ㅆ지만 파리떼들을 이끼속에서 꼼짝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앙쿠니에서 처음 먹는 아침을 편하게 즐길수 있었다. 파리떼가 행동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답사를 하기로 했다. 오호토가 맨먼저캠프를떠나 오래된 사슴뼈를 건성으로 조사하면서 내륙으로 들어갔다. 그는 멀리 점점 사라지더니 잠시 멈추는듯 했다. 망원경을들고 바라보니 그는 바위가 산재해있는 언덕을 기어오르다 어느새 그자리에하나의 이누콕만을 바렌의 지평선위에 오뚝하니 남겨놓고는 잠시후에 내시야에서 아주 없어져 버렸다.

우리들은 떠나기전에 그당시 앙쿠니 지도로서는타이렐씨가 그려놓은것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본을 한개 가지고 왔었다. 앤디가 오래전에 죽은 사슴뿔을 재고 조사하는동안 나는 타이렐씨가 50년전에 보았다고 기록되어있는 에스키모의 부락을 조사해볼려고 카네투아만의 연변을 답사하기로 했다. 약 반마일가량 왔을때 타이렐씨의 지도에"에니타의캠프"라고 명시되어있는 바위산이 있었다. 삼각형으로 지도에 표시된곳에 타이렐씨가 왔을때 세개의 텐트가 서있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세무더기의 둥그렇게 돌을 놓아둔것이 보였는데 그절반은 이끼에 묻혀있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젖,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PRE-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송년파티

회원과 교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망했던 한해를 다시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리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일 시: 1981년12월31일(목)저녁7시~새벽2시까지
장 소: 거구장
인 원: 80커플(선착순)
주 최: 신우회
후 원: 한국일보사, 민중신문사
연락처: 743−8220(Mr. 정), 651−1577(Mr. 배),
745−7843(Mr. 김), 247−1090(Mr. 최)
티 켓: 카플 $30.—(디너, 소프트 드링크)
※밴드와 가수의 특별출연이 있사오니 기대하십시요.
상품기증업체: 거구장. 미도파백화점. 삼복식품
황용현복덕방. 동양식품. 노스욕·
오토바디. 킴스 미용실. 스타미용실
리스본 오토 콜리죤. 스테레오킹
FIRST AUTO SERVICE
연합상사(도매상)한국식품(서부)

※파티예약상 거구장에서는 7시이후 일반손님은 받지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동창회 망년파티

일 시: 12월26일 오후6시
장 소: WESTON HOTEL TOR.(구HOTEL TORONTO) GOVERNER GENERAL SUITE
주 소: 145 RICHMOND ST. W
연락처: 964−3644 윤호영

경기동창 회장 윤호영

國際通用 크레디트·카드 나온다

5개市銀、美마스터·카드提携 내년 첫선

百42個國 3천만店鋪 가입
全國일원서 共同사용 가능

한국을 포함, 세계 1백42개국가에서 사용할수있는 국제적통용력을가진 크레디트·카드가 내년초 우리나라에서 발행된다. 10일금융계에의하면 商業, 韓一, 朝興, 第一, 서울信託등 5개시중은행은 세계제2위의 카드회사인 마스터·카드·인터내셔널과 제휴, 마스터·카드사용권인 1백42개국 3천3백만점포와 한국내 전국일원에서 공동으로 사용 할수있는 크레디트·카드를 발행키로 하고 이문제를 협의하기위해 10일 내한한 마스터·카드·인터내셔널의 E·토우손부사장(극동지역담당)을 맞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곧 專擔社共同설립…명칭은「마스터·올림픽·카드」검토

이에앞서 5개시중은행은 크레디트·카드 공동발행을위한 겸업신청서를 지난11월말 은행감독원에 제출, 현재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초 발행을 목표로 카드관리 전담회사의 공동설립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5개시중은행은 당초 크레디트카드의 조기보급을 위해 국내에서 전국일원에 통용가능한 카드를 공동발급할계획이었으나 88년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을 비롯 국제교류와 외국인입국이 급격히확대돼나가는추세에있고한국인의 해외진출도크게늘어나는추세를 보이고있는점을감안, 차제에 국제적 통용력을 가진 카드와 제휴, 공동사용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보고 세계최대의 카드회사의하나인 마스터·카드·인터내셔널과 제휴키로 한것이다.

은행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제휴하게됨에 따라 8천여만명에달하는 마스터·카드회원들은 보유중인 카드를 한국내 전국일원에서 그대로 사용할수있게되며 은행공동카드에 가입한 내국인들은 세계 1백42개국에 산재해있는 3천3백여만의 가맹점포에서 카드를 그대로 쓸수있게 된다. 마스터·카드·인터내셔널은 한국이 86년에 아시안게임, 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므로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데다가 5개시은이 공동발행하므로 신용상태도 안심할수있다고 보고 제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개시은은 카드명칭을 마스터·올림픽·카드로 한것을 검토중이며 카드의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만들어 국내외에서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이카드 하나만 가지면 해외에 나갈때도 별도로 환전을해서 현찰소지를 할 필요가 없게되며 국내에서도 5개시은 점포가있는곳이면 어디서나 사용할수 있게된다.

8천여만명의 마스터·카드 소지의주인들도 현찰없이 국내에들어와 전국어디서나 카드를 사용할수있게된다.

한편 외환당국은 카드를소지한 내국인이 해외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사용을할 것에대비, 카드사용액의 한도를 정하고 은행구좌잔고확인을통해 사후관리하는 방법등을 검토하고있다.

蘇、사하로프에 屈服

며느리 出國허용
斷食18일만에 끝내

【모스크바9日AP=聯合】모스크바로부터 4백2㎞ 떨어진 볼가강유역의유배지 고르키市에서 며느리의 출국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여온 소련의 반체제물리학자 안드레이·사하로프박사(60)와 부인 엘레나·보네르여사(59)는 당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를 받은직후 18일째계속해온 단식투쟁을 끝낸것으로 9일 알려졌다.

사하로프박사의 며느리 리자·알렉세예바양(26)은 이날 사하로프박사부부가 지난 80년1월 고르키시로 유배되기전까지 기거했던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서방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을통해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출국비자를발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사하로프박사부부는 이같은 통보를 받고 단식투쟁을 끝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알렉세예바는 자신을 담당했던 비밀경찰(KGB)요원 알렉산더·바라노프가 이날 갑자기 자신을 소환,『당신은 출국비자를 발급받게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사하로프박사도 이같은 통보를 전한후 단식투쟁을 중단,『건강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하로프박사의 며느리 리자·알렉세예바가 소련당국이 그녀의 출국을 허용키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하로프박사의 아파트에서 미소짓고있다. 【모스크바9日AP=聯合】

슈미트·호네커 오늘 頂上회담

【東베를린9日AP=聯合】슈미트서독수상과 에리히·호네커동독국가평의회의장은 11일 11년만에 처음으로 동서독정상회담을 갖고 동서독과 동서관계증진방안을 논의한다.

通禁解除건의안 通過

國會內務委
舊正公休日 지정案은 否決

국회內務委는 10일하오 국민당이 제출한 通禁해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舊正公休日지정및 農本節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表決에 부쳐 찬성11, 반대15, 기권2표로 否決시켰다.

이날 表決에서 民正黨소속 의원들은전원 반대했고 民韓·국민당과 議政同友會의원은 찬성했으나 民韓黨의 孫世一·朴寬用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舊正공휴일 지정문제에대한 贊反토론에서 鄭男의원(民正)은『국민일체감조성을 위해 新正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정부·여당은 국민다수가 원치않더라도 먼장래에 국가민족을 위해 옳은방향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반대했으며 柴祝槍의원(民正)도『세계가 좁아지고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있기 때문에 우리스스로가 年號를 西紀로 쓰고있는것이 실정』이라면서『24節候도 양력에 근거한것이기 때문에 농사에도 양력사용이 더편리하다』고 舊正공휴일지정 반대주장을폈다.

반면 柳畯相의원(民韓)은『국민80%가 舊正을 원하고있는현실을 무시하고서는 국민일체감을 조성할수 없다』고 찬성했고 李成一의원(국민당)도『舊正공휴일지정필요성에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반응을보면 再論의여지가 없다. 이문제를 확정하기 전에 公聽會를열어 국민의사를 수렴하자』고 찬성토론을 벌였다.

이날 通禁해제건의안이 통과되기직전 鄭男심사小委위원장은 심사보고를통해『야간통금은 군사및 치안상의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전국적으로 해제할것을 건의한다』면서『특히 통금해제로인한 安保및治安상 야기될수있는 제반문제점에 대해선 정부측이 빠른 시일안에 준비를 갖춰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柳畯相·徐淸源·朴寬用(이상 民韓) 孟殷在의원(民正)등은 通禁해제이후의 문제점, 해제시기등에 관해 徐廷和내무장관에게 질의했다.

駐韓 리비아大使 全대통령이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아쇼르·벤·카얄 駐韓리비아국민사무소 대표(大使)의 新任예방을 받았다.

이자리에는 盧信永 외무장관이 배석했다. 【사진】

國際戰略研 소장도

全대통령은 이어 영국 런던에있는 國際戰略문제연구소의 크리스토프·베르트람所長(獨逸人)을 접견,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振羲(?) 문화방송사장이 배석했다.

韓·日經協에 돌파구

「先 실무자접촉·後 外相會談」합의

韓日양국간의 현안인 60억달러經協문제는 양측이 先실무자접촉과 이에따른 外相회담再開라는 새로운접촉에 의해 접근을보여 빠르면 금년내 이뤄질것으로 보이는 日外務省실무진의 訪韓을계기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될것으로 관측되고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10일『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위해 양측 모두가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구체적인 노력으로 ▲한국측이 日側의 실무접촉제의를 받아들이되 ▲이접촉에서는 日側의 엔(円)借款협상제의가아닌 한국側의 60억달러經協타결을 주요의제로하며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위해 外相회담의 再開에관한 구체적인 일정및 議題협의를 실무접촉에서 아울러 타결하는 방안으로 압축되고있다고 말했다.

女流短篇시리즈 2彈

◇梁順錫씨

◇金 鈴씨

크리스머스에 들뜬 都市떠나 겨울旅行의 따사로운「사랑」

바다에서 플룻을

梁順錫 作 金 鈴 畵 오늘부터 6면 連載

12월을 따스하게 밝힐 여류 단편소설 두번째 작품으로 28세의 젊은 여류작가 梁順錫씨의「바다에서 플룻을」을 11일자부터 연재합니다. 梁順錫씨는 80년에 季刊『文藝中央』신인문학상에 中篇소설「오위류」로당선, 문단에 화려하게 데뷔한 작가로 여성이 가지는 비극이나 불행을 훌륭하게 극복해가는 소재를 자주 다루어『평온하고 따뜻하게 읽히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읍니다. 새 연재 단편소설「바다에서 플룻을」도 한 여성이 크리스머스로 들뜬 허황된 도시를 쫓기듯 떠난 겨울 여행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 밝고 따뜻하게 밝히게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送年을 아름답게 꾸밀 이 소설의 삽화는 올해 國展에서 특선한 여류화가로 유니크한 筆致로 주목받고있는 金鈴씨가 맡아 수고합니다.

한국일보社

"舊正公休반대"起立표결
10일하오 국회內務委의 舊正公休日지정에 관한 표결에서 民正黨의원들이 起立반대하고있다.

年末年始 검소한生活 앞장

南總理지시

南悳祐국무총리는 10일 年末年始 복무자세확립과 건전한기풍 조성을 위한 총리지시(제43호)를 各部處에 시달,『모든공직자들은 아직도 주변에 남아있는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등 폐습타파에 앞장서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며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위해 주위의 국민들을적극 계도 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시에서 南총리는『81년도 업무는 될수있는대로 年內에 완결짓되 완결할수없는 업무는 새해연초에 앞당겨완료하고 82년도에 추진할 각종건설사업은 早期집행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南총리는 또 기업체와 근로자에대한 경제교육을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전국민에 대한 경제교육을위해 12월과 내년1월의 班常會를효과적으로활용하라고지시했다.

南총리는 철저한 복무자세와 경제태세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해 ▲직위의 높고 낮음과 職務內外를 불문하고 선물교환과 상호방문을 삼갈것은 물론 특히 上下간에는 이같은 행위를 일체금하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 검소한 年末年始를 보내고 ▲忘年會, 新年會등 각종 모임은 검소하게 치르고 연하장이나 카드등을 분에 넘치거나 과다하게 보내지 말고 ▲직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불우이웃돕기운동에 솔선참여할 것등을 지시했다.

社會漫評

생겨봤자 門턱은…

기우찌 亞洲局長 日、年內派韓검토
經協 早期타결케

【東京10日=聯合】일본정부는 현안의 韓日경협문제를 조기타결하기위해 외무성의 기우찌(木內信胤)아시아국장을 연내라도 한국에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외무성소식통은 9일 한국측이 실무회담보다도 외상회담의 선행을 요구하고있기때문에 이문제를 포함, 일측의 진의를 한국에 전달하기위해 담당국장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地平線

국제赦免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는 해마다 이맘때가되면 人權보고서를 낸다. 이는48년12월10일 제3차국제연합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人權선언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중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행사중의 하나인데「세계良心에 대한 도전」이라 이름한 금년 보고서도 예년처럼 전세계의 암울한 人權사정을 고발하고있다. ▼앰네스티는 41년 영국의 변호사 피터·베넨슨이 세계각국 良心犯을 위한 글을 신문에 기고한데서 비롯된다. 국제적인 救免歎願을 人權실현의 중요 戰術로 채택한 이 모임은 20여년 자라오는 동안 25만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세계각국 2천여 歎願者 그룹의 호응을받고있다. 이들이 규정하는 良心犯은 폭력을 사용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데, 오직 그들의 신념때문에 자유를 뺏긴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해 앰네스티가 조직한 운동은, 良心犯의 아내와 어머니가 쓰고 있는 歎願에 동조한다는 것뿐이다. 요컨대, 人權탄압국가에 국제적인 여론의 압력을 넣는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戰術의 유효성은, 앰네스티가 일부 南美 정부로부터는 공산당의 앞잡이로, 소련으로부터는 서방 자유주의의 선전기관으로 비난 받고 있는 사정에 逆說的으로 잘 나타나고있다. ▼그만큼 人權문제로 앰네스티의 비난을 받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다. 人權의 旗手를 자처하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앰네스티 보고서는 미국의 死刑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中共의 공민권 제한과 불법체포, 南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 소련과 東歐의 반체제人士탄압은 말할것도없다. 마침 소련의 반체제 과학자 안드레이·사하로프의 추방·단식뉴스와 때를 함께하여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人權을 아랑곳않는 소련이,「12월10일」을 유별나게 기억했을까닭은 없지만, 여하간 소련정부는 이날을 앞두고 사하로프의 단식투쟁앞에 굴복했다. 人權승리의 한章이며, 국제여론의 유효성을 다시 증명한것이라 보아 틀림없다. 사하로프 자신도 작년 고르키로 추방된뒤 서방세계로 밀반출한手記에서「우리들을 위한 유일한 보호는 세계도처의 벗들이우리들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국제여론의 힘을 평가했던것을 기억한다. 세계최악의 人權유린地帶인 北韓을 생각하며 거기 세계여론의 빛을 비출수 있도록, 우리나름의 노력을 다짐해야한다는 교훈이 담긴 말이다.

民韓제안 金融法案 財務委서 계류조치

국회財務委의 金融關係法심사小委는 10일 정부가제출한 韓銀法개정안과 民韓黨이 낸 銀行法개정안、金融기관에 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안등 3대 金融관계법안에대해 時急을 요하기는 하나 정부가추진하는 金融산업의全面개편방향에 맞추어 관련검토가 필요하다는이유로 繫留시키기로했다.

小委는 이어 證券발행手數料(0·02%이하)를 신설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정부原案대로 통과시켰다.

小委는 또 담배전매법 개정안중 잎담배耕作者 보호를위해 경작개시전에 收納豫定價를 고시한뒤 수납직전에 확정가격을 결정키로 修正、통과시켰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동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KUSA크리스마스파티

년말을 맞이하여 이번 KUSA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2월23일(수) 저녁7시~2시
장 소 : Tartu Banquet Hall 310 Bloor St. W.
회 비 : 어드벤스 티켓 : 멤버 $10
Noon 멤버 $13
at the door $15
(디너포함)
※드레스는 Semi Formal
연락처 : 298-0432(천명호)

한국 대학생회 회장
천 명 호

성탄축하음악예배

"인류의 소망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음악예배를 준비하고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12월20일(일)저녁7시
장소 : 토론토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TORONTO 전화 : 535-6864)
지휘 : 백효증
반주 : 김명원
합창 : 본성가대,호산나청소년합창단 합동 80명대원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종합보험

김 홍 랑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크렘린壁」을 뚫었다

사하로프 끈질긴 良心鬪爭승리

60년 核실험중지호소 화근

蘇、「軍縮회담」 무드에 굴복

75년 노벨賞수상…出國거부로 참석못해

反體制 人權운동에 며느리 볼모

國際焦點

며느리의 출국허가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소련반체제인사 안드레이·사하로프박사(60)부부는 결국 크렘린당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정치집단인 크렘린도 양심적인 한개인의 굳은 의지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개인이 거대한 조직체를 상대로한 싸움에서 승리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하로프는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사하로프는 이번 단식투쟁에 승리함으로써 지난 80년1월22일 고르키市 유배이후 한동안 세계인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자신의 존재와 소련반체제인사의 人權상황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번 사하로프 박사부부의 단식투쟁의 표면적 이유는 소련당국이 며느리 리자·알렉세예바(26)의 미국출국을 부당하게 막은데서 비롯되었다.

리자·알렉세예바는 미국에 유학중인 남편 알렉세이·세묘노프(25) 곁으로 가고싶어 했다.

알렉세이·세묘노프는 사하로프박사의 두번째부인인 現부인 엘레나·보너여사(59)와 전남편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사하로프와 피를 나누지는 않았다.

세묘노프는 3년반전에 미국으로 망명、현재 매사추세츠州 월댐市에 있는 브랜다이스대학의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있다.

세묘노프는 지난6월 몬태나에서 대리인을 세워 알렉세예바와 결혼했으나 소련당국은 이 결혼식의 합법성을 인정하지않아 알렉세예바의 출국을 거부해왔다.

사하로프는 소련당국의 이같은 처사가 자신의 反체제 인권운동을 저지하기위해 며느리를 볼모로 삼으려하는것이라고 판단, 단식투쟁에 들어갔었다.

지난4일 소련당국은 단식중인 사하로프박사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를 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며느리 알렉세예바를 한때 강제연행하기도 했다.

소련정부가 알렉세예바의 출국을 허용, 이례적으로 사하로프박사에게 커다란 양보를한 이면에는 소련측의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다. 소련은 아프간사태와 폴란드사태이후 내리막길을 치닫던 동서관계가 최근들어 제네바군축회담개최와 兩獨정상회담개최등으로 호전될기미를 맞고있는 화해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레이건등장이후 美·蘇간의 첨예화된 舌戰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소련反체제인사의 人權문제가 이번 사하로프 단식으로 재부각되게 되었다.

사하로프의 反體制운동은 지난60년 흐루시초프 수상에게 核실험중지를 호소한데서 시작된다.

이 사하로프가 소련과 정면으로 충돌한것은 지난68년 그의 저서 「발전·생존·그리고 知的자유」가 해외에서 출간되면서 부터였다.

이 저서에서 사하로프는 美·蘇간 긴장완화 및 협력을 촉구하면서 이를위해서는 소련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크렘린의 비위를 거슬렸다.

그는 70년에 발레리·찰리제와 안드레이·트베르도크레보프등과 함께 소련인권위원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소련당국의 끈질긴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反體制운동을 주도했던 사하로프는 그공로를 인정받아 75년 노벨평화상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소련당국의 출국허가거부로 수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하로프는 지난 80년 1월 소련비밀경찰(KGB)에 체포되어 모스크바동쪽 4백㎞ 지점에 있는 볼가강변의 고르키市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지금까지 외부와 완전차단된 생활을 하고있다.

소련을 떠나라는 당국의 계속된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사하로프는 조국을 떠날수 없다고 계속 버티어오고 있다.

사하로프는 고르키에 유배되기전에 자신은 反體制중심인물로서의 삶에 차츰 지쳐가고 있다면서 反體制운동을 통해 얻은것이라고는 도덕적 만족감뿐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바 있다.

사하로프가 고르키시에 유배됨으로써 위축되었던 소련의 反體制운동은 이번 단식투쟁의 성공으로 인해 커다란 힘을 얻게되었고 세계의 여론과 양심이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李炳圭기자】

◇유배지인 고르키시내 한 아파트에서의 사하로프와 부인 엘레나·보너여사。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 一 漢 ⑭

선교사의 安息年

父親따라 美로…3年間지내

한국국민들이 일본의 무단정치에 항거하여 일제히 궐기했던 3·1만세운동과 며칠사이로 나의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다. 당시 세브란스에 근무하던 스코필드박사와 李甲成씨등이 크게 활약한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때 29세의 젊은 청년이던 아버지(元漢慶박사)는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을 전세계에 알려 한국이독립을 갖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일부를 맡았다.

미국북장로회 선교부에 편지를낸 끝에 여러달이 지나 미국기자들이 도착했다. 아버지는 이들을 提岩里로 안내했다고한다.

이해에는 호열자라는 전염병이번져 공포분위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때 어떤 선교사집에 드나들던 가정부가 아침에 일하고 간뒤 그날밤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한때 긴장하기도 했다는것이다.

어머니 에델·반·와그너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했다. 그러나 한번은 천연두 걸린 사람이 우리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매우 당황했다는 말을 한기억이 난다.

내가 만6세가되던 1923년부터 아버지가 안식년을 맞아 전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가 3년가량 머물렀다.

그때 나는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어린이였음에 틀림없다. 한국사람과 대할때는 한국어로 미국사람과는 영어로 말했다고한다.

그러나 삼대밤이 영어로 말을 건네올 경우는 대답을 하지않았다고 들었다. 아마 나를 놀려주려고 하지않나 하는 경계심 아니면 장난꾸러기의 행동에서 그랬을 것이다.

나는 어렸을때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했다고한다. 이 바른 인사성이 습관화되어 미국에 갓 도착해서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꾸벅 절을했다.

서울에서는 미국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만나는대로 모두인사할수있었으나 미국에서 곧 중지했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루종일 절만하고있어야 했을것이다.

우리가족이 미국에가서 산 곳은 뉴욕 브루클린이란 곳으로 할아버지(元杜尤목사)의 형제인 존·티·언더우드의 주택을 빌어살았다.

존·티할아버지는 그전에도 썼듯이 延禧캠퍼스를 짓는데 많은재정지원을 아끼지않았고 우리가 미국서 살수있는 집까지 마련해주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안식년을맞아 미국에 떠나기전무렵 우리3형제가 延世캠퍼스 백양로에서 놀고있을때의 모습.

父母는 宣敎사업 보고·大學院생활로 바쁜 나날

선교사의 안식년이란 말이 安息일뿐 실질적으로 본부근무의 해란 표현이 더 옳을 것같다.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는 안식년을 맞아 로터리클럽 실업인의 소굴에 다니며 한국선교사업에대해 설명하는등 바쁜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 세브란스교장이던 에비슨박사와 함께 미국 캐나다각지를 선교여행한일은 잘 알려져있다.

여행도중에 더러 모금도 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모금을 피하는것이 선교사의 원칙이었다.

안식년기간에 나는 국민학교를다녔고 아버지는 뉴욕대학 대학원에 입학 교육학을 공부했다. 아버지의 저서가운데 英韓辭典외에도한국어독본인 Every Day Korean과 Modern Education in Korea (한국의 근대교육)가 있다. 「한국의 근대교육」은 그가 대학원연구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인데 후에 이를보충하여 박사학위를 받기도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교육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각급학교에서 행해지고있는 교육현대화가 정신적으로 선교사업에의해 성취되고 있다고강조한점이 특징이다.

어머니는 미국체류중 대학원에 다니며 아버지와 같은 교육학을 전공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책을 손에서 떼지않았으며 특히 대학까지 왕래하는 지하철속에서 많은양의 독서를 했다고한다.

어머니는 이때 받은 석사학위로 延禧전문학교에서 강단에 서는등 한국에서 많은 사회활동을 했는데 이때 얻은지식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나토國防相회담失敗

史上첫共同聲明발표못해

【브뤼셀9日UPI·綜合=聯合】15개국 나토국방상들은 9일 그리스 사회주의정부의 터키침공위협에 대한 안전보장요구를둘러싼 의견대립으로 나토각료회의사상 처음으로 아무런 공동성명도 채택하지못한채 이틀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요세프·룬스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그리스 터키양국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폐막 코뮈니케도 없이 국방상회의가 결렬상태로 끝나고 말았다고 말하고 폐막성명없이 각료회의가 끝난 것은 나토32년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그리스의 안드레아스·파판드루수상겸 국방상은 나토내에서의 그리스지위에 관한 나토회원국과의 협상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한뒤 이날 국방상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회의가 난관에 봉착했음을 암시했다.

파판드루수상은 8일 국방상회의연설을 통해 공동성명에 터키로부터의 어떠한 침공의 경우에도 그리스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것을 요구한데 반해 터키측은 그리스침공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이같은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했다.

여객기拉致犯들 裁判회부

쿠바 被拉機등歸還에最善

【아바나9日AP·聯合】베네수엘라 국내선여객기3대를 공중납치했던 11명의 납치범들은 『사실을 정확히 분별하는 적임의 관사들에의해 처리될것』이며 피납기와 여객들의 귀환을위해 쿠바당국이 모든 편의를 제공할것이라고 쿠바내무성이 9일 코뮈니케를통해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국내선여객기3대를 동시에 공중납치했던 납치범들은 8일 쿠바수도 아바나에 착륙、당국에 투항함으로써 미주를 가로질러 7개국을 횡단하면서 2일간 계속했던 납치극의 막을내렸다.

리비아機 拉致犯들

레바논當局에 투항

【베이루트10日外電·綜合=聯合】리비아항공사소속 보잉727여객기를 공중납치했던 레바논의 시어파 회교도납치범3명은 10일상오 인질로잡고있던 승객및 승무원 전원을 무사히 석방한후 레바논당국에 투항했다.

베이루트공항관제탑관리들은 불과 수시간 전까지만해도 요구조건이 수락되지않을 경우 인질들을 차례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던 납치범들이 베이루트공항 도착후 레바논의 시어파 회교지도자들과 만난뒤 투항했다고 밝혔다.

暗殺團 멕시코 潛入

CBS보도 美 과격테러단체「웨더」와 접촉

【워싱턴10日AP=聯合】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지도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리비아가 미국에 침입시킨 것으로 알려진 5명의 암살단은 현재 멕시코에 체류중이라고 미국의 CBS방송이 9일밤보도했다.

이방송은 익명의 의회소식통을 인용、이 암살단이 현재 멕시코에 잠입해있으며 미국정보보고분석결과 이들이 이미 미국과격지하테러단체인 웨더(氣象)단원들과 사전접촉을 가진 [illegible]하다고 밝혔다.

이방송은 또 6명의 암살단원중 3명은 중동국적을 가진것으로 보이며 금발의사나이로 표현되고있는 1명은 독일인인것같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어 미당국에 암살단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수차례의 거짓말 탐지기검사를 통과했으며 미국밖에서 정신병의사의 진단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및 미외교관계자들은 리비아 암살단이 멕시코에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태리·스피크스 백악관 부대변인도 방송보도에 논평을 거부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금주중으로 세번째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투항한 레바논機 납치범들 리비아항공사소속 보잉727 여객기를 납치、베이루트공항으로 끌고온후 레바논당국에 투항한 3명의 레바논과격파납치범들이 납치극이 끝난후 손을들어 V자를 표해보이고있다. 【베이루트10日AP=聯合】

OPEC、할증료引下시사

야마니 "훌륭한 X머스선물 준비"

【아부다비9日外電·WAM=聯合】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은 9일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설사 달러화가치가 하락한다하더라도 오는 82년말까지 현 유가를 계속 유지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식통들은 야마니석유상이 현재 최고 배럴당 4달러까지 되어있는 할증료의 인하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것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OPEC 임시석유상회의는 OPEC공시가를 사우디산 경질유기준 배럴당 34달러로 단일화하는 한편 품질에 따라 최고 4달러까지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는데 리비아·나이지리아등 고유가 산유국들은 국제시장의 수요감퇴에 따라 할증료를 인하해왔다.

한편 OPEC석유상들은 이날 금년들어 4번째의 각료회의를 개막, 할증료 재조정문제를 중점 논의하기 시작했다.

大主敎와 緊急회담

波勞組지도자 7명

【바르샤바·9日外電·綜合=聯合】레흐·바웬사를 비롯한 7명의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들은 정부의 노조반대운동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9일 요제프·글렘프 대주교와 4시간동안 긴급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가톨릭교회가 의회에 대해 파업금지등 비상대권을 정부에 허용해달라는 공산당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긴급촉구한데 뒤이어 이루어진것이다.

글렘프 대주교관저에서 열린 4시간동안의 회담이 끝난후 레흐·바웬사는 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로부터의 중대전화를 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

오랫동안 폴란드위기중재를 시도해온 글렘프대주교와 바웬사간의 이번회담에는 노조전국위원회 3명과 노조자문위원및 지난해 조선소파업때 미사를 집전했던 헨리크·얀코프스키신부등 성직자들이 배석했다.

外國업체 進出규제

加業界 政府에촉구

【터론토(캐나다)9日=聯合】캐나다 造船業界가 외국조선업체의 국내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따라 韓國의 장기적인 캐나다선박시장진출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造船및 선박수리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피에르·트뤼도 수상정부에 외국조선업체가 캐나다선박시장에 더 깊게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메아리

물보다 흔한 석유자원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중동산유국이지만 우리완 반대로 물이 기름보다 귀하다. 농업개발과 공업화를 가속시키면서 「물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때문이다.

시리아가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에 댐을쌓아 이라크와 티격태격했고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물싸움 신경전이 긴장관계를 빚었다. 암살당한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은 나일강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강물을 보호하기위해선 「무력행사도 서슴지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일도 있다.

세계의 水資源은 물쓰듯 흥청거릴만큼 풍부하지는 않다. 한여름에 강우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도 흔하면서 귀한게 물이다. 한해강우량은 1천1백40억톤이 되지만 이중 생활、농·공업용수로 활용되는것은 13.4%에 지나지않는다.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 가거나 지하수로 스며들고 증발해 버린다.

한해 필요한 用水量은 1백79억톤인데 수리시설의 빈약으로 26억톤이 모자라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주기적으로 가뭄과 홍수에 의한 물난리를 겪어왔다. 지금도 해마다 3천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물때문에 입는다.

水利는 농업국가에선 당연히 제일 큰관심거리였다. 조선조에선 堤堰司라는 기구를 두고 수리에 관한 조사、관리、보수를 맡겼다. 高宗때 와서 이 기구를 최고기관인 議政府에 소속시킨것은 중시할만 하다.

榮山江 하구언

범람과 갈수가 되풀이되던 榮山江하구가 「동양제일」의 담수호로 바뀌고 河口堰이 거대한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동양제일이 남용되지않나하는 느낌이 없지않지만 이번의 「제일」은 정말 반갑고대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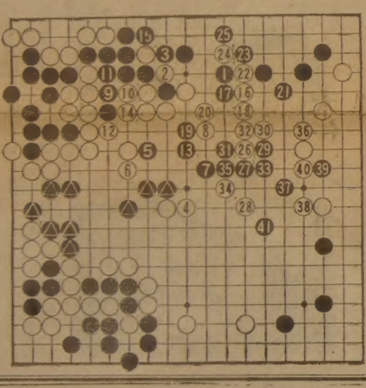
간척의 나라 和蘭엔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해안 댐인 32㎞의아프슐루이디크 댐이 있고그주변엔 면적 6만3백헥타르에 이르는 간척지가 있다. 이와비교할바는 아니나 4.35㎞의 영산강하구언 완공으로 1만5천6백헥타르의 논·밭이 전천후 옥토가 되었고 간척지는 공단과 택지로도 쓰이게 되었다.

「木浦의 눈물」로 이름난 木浦시민들은 물걱정으로 눈물이 맺힐 일이 없어졌고 이지역의 관광가치는 한층 돋보일것 같다. 「主穀自給」의 굳은 의지가 새겨진 하구언은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6譜101~141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姜 勳 〈2勝0敗〉
黑(4段)鄭壽鉉 〈1勝1敗〉



鄭4단에게는 좀 안된일이지만 本譜에서는 黑이 사뭇 곤경에 빠져서 보기에도 딱할지경이었다. 좌변 黑4점을 뜯어낸데서 ▲표 黑대마를 끌고늘어지는 姜4단의 투지는 무섭기만했다. 이에 반하여 黑은 우측으로 달아나기가 바빠서 두는 점마다 공배이고 둘수록 집이 커지기만 했다.

그러나 물론 黑은 필사적이다. 黑9로 끊어냈지만 白은 여유있게 10에서 14. 모두가 正手로대응한것이다. 黑21 일견 [illegible]. 그러나 이렇게해서 白22로 재고 24로 굳는수에 대비해야 된다. 이하 黑27까지 되었을때 姜4단은 한5분쯤 망설이다가 톳을 굳히고 한복판을 白28로 뛰어두었다. 왼쪽에서 두칸, 오른쪽에서 세칸.

白軍、千里長征

너무 허술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유력한 차단이라며 姜4단은 의기가 충천해 보였다. 이제까지 시도해온 一大長征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일까. 여하간 白은 점점 커지고 있다.

黑은 29에서부터 여전히 활로를 모색하더니 白38때 장고 18분. 그리고 黑39에 뛰어들었다. 이를테면 고심의 一着. 白40이 뻔하지만 41을 두려는 희생타이다.

아마추어 눈에도 41은 어쩌면 白이 끊어주기를 유도한 함정같아 보인다. 姜4단은 한동안 이곳을 응시하더니 『모르겠는걸』하며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일단 눈길을 하변에 돌린다. 정말로 여기서 공격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변을 본것은 일종의 제스처인가. 곁에서 보는이가 공연히 가슴을 죄어야하는 대목이다.

無害한 菌이 殺人者로 표변

患者92% 男性同性연애

體內抗菌체계 급격쇠퇴

美 질병통제센터 발표

【보스턴AP=聯合】미국 곳곳에서 남성동성연애자들의목숨을 유행처럼 앗아가고있는 폐렴과 암의 수수께끼를연구해온 의학자들은 체내의 항균체계가 이상스럽게 쇠퇴하여 무해한 균들이 살인자로 표변해버리는 사실을 추적해냈다.

이 의학자들은 병의 원인이 너무도 새로운것이어서 아직 뭐라고 명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와같은 현상은 지난7월 첫 감염자가 나타난이후 미국 15개주에서 1백80건이나 보고되었고 그중 75명이 사망했다. 또한 의사들에 따르면 환자의 92%는 남성동성연애자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틀란타에 있는 질병통제센터의 제임즈·커런박사는 남성 동성연애자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질병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illegible]들고 있는것 같지않다』면서 『이들 환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들은 이병에 걸린 환자들은 면역성이 위험할 정도로 약화돼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해도 되지 않는 세균성 감염에 아주 취약、면역성이 고의적으로 억제된 사람들에게만 으레 나타나는 이 희귀한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듀크대학 의학센터의 데이비드·T·듀랙박사는 뉴잉글랜드의학지의 논문에서 이희귀한 병에 감염된 동성연애자들이 모두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진찰을 받을것』을 조언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세가 갑자기 악화、입원하기전 몇달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않음을 느껴왔다.

이환자들 대부분은 남성동성연애자들의 94%가 보유하고있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감염돼있으며 남성동성연애자들은 1차감염에서 회복되기전 거듭감염돼 결국 만성질환、무저항력、카포시육종등에 걸리게 된다.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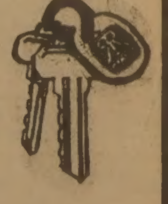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사성
(B)497-068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宗敎

소식

圓佛敎청년회 定總

圓佛敎청년회(회장 金道隆)는 제20차 정기총회및지도자수련회를 24일부터 29일까지 중앙훈련원에서 개최한다.

원불교청년운동 20년을 회고하고 새로운 청년운동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원불교청년운동의 이념과 방향, 20년간의 활동등에대한 토론회를가지며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과 「원청운동20년사」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구성등이 다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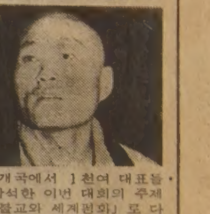
曹溪宗 中央宗會

大韓佛敎曹溪宗 제70회 정기중앙종회가 오는 16일부터 총무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82년도 총무원 예산심의▲기타 사항으로돼 있으나 이례적으로 회기를 10일간으로잡고있는데다 종단내의 여러가지문제들이 어느때보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義玄스님 부회장에 世界佛敎 승가대회

臺灣에서 열렸던 세계불교승가회 제3차대회에서 조계종중앙종회의장 徐義玄스님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40여개국에서 1천여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불교와 세계평화」로 다음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在鄕軍牧 수련회

기독교 각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재향군목회(회장 李鳳燮목사)는 지난 7~9일까지 가든호텔에서 수련회를열었다. 친교단합과 자질향상을 위해 갖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李漢彬(미래사회와교회의사명) 金大煥(정신문화개발) 김한식(한국사상사에 끼친 교회의역할) 이강석박사(국제정세와안보) 등의 강의를 들었다.

가톨릭 寫眞공모전

가톨릭사진가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사진공모전이 12일부터 열흘간 明洞성당구내 바오로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3백14점이 응모, 64점이 특상 금은동상 가작 입선 순으로 뽑혔다.

침례회 慈善음악회

침례회서울지구 청년연합회가 주최하는 자선음악회가 17일하오5시반 7시반 두차례 류관순 기념관에서 열린다. 「늘찬송하면서」의 주제가 붙은 회원권은 1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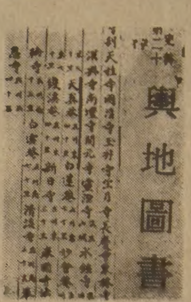
天主敎발상지 "20년 해묵은 論爭이다" 反駁

天眞菴 현위치 틀림없다

出土된 사기그릇에 「天眞寺」銘文
輿地圖書도 「廣州 在東40里」明記
"南人학자들 講學會는 走魚寺 天眞菴 두곳서열려"

가톨릭 敎會史家들간에 한국天主敎 신앙발상지논쟁이 열기를 띠고 있다。이 논쟁은 최근 한국교회사연구소장 崔奭祐신부가 한국天主敎 신앙발상지는 현재 성역화작업이 진행중인 天眞菴(경기도廣州郡退村面牛山里)이 아니라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2㎞떨어진 산너머에 있는 走魚寺(廣州郡金沙面下品里)부근에서 天眞菴터를 새로 발견했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야기됐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계 대부분의 학자들은 20년의 해묵은 논쟁이라고 반박, 天眞菴대웅전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각계에 제시, 현재 성역화작업이 진행중인 天眞菴이 한국천주교 신앙발상지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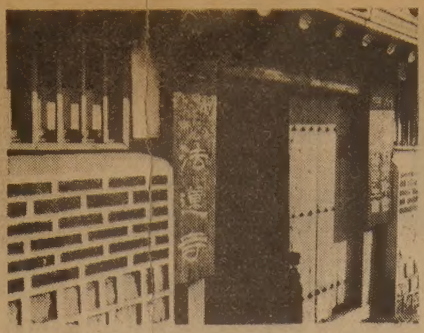
◇지난9월 天眞菴터 李檗선생 옆에다 다른 강학회 참석학자들의 묘를 축성하다가 발굴된 天眞寺 日用摩指器라 새겨진 사기그릇。이 銘文의 발굴로 현위치가 天眞菴터라는 고증이 확실해졌다。



輿地圖書

【李中雨기자】

「沈默의 美德」



말씀

釋智賢 <法蓮寺 스님>

너무많은 말들이 靈的空間 오염

史의 名言

高麗末의 儒學者。子는 再夫 號는 冶隱 金烏山人, 本貫 善山。32代 우왕말년에成均館博士가됨。國除과함께 麗末三隱。조선조 개국후 國太常博士를 사양。

「사람이 日常言行에 실수가 있는 것은 夜間의 靜思가 부족한 탓이다」

면서도 이미 선비로서 참여할 여지가 없게 되자 定宗2년 38세때 從事郞門下注書의 직을 마지막으로 善山에 내려온 뒤엔 조정에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고려는그 후 2년만에 亡했고 그는 사방에서 모여드는 후진교육에 힘썼다。

李태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왔으나 「臣이 듣건대 여자에게는 두 남편이 없고 신하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했다」면서 고향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그가 한국儒學에 불후의功을 세운것은 저술보다도 節義와 學行및 後進교육을 통해서다。

그는 평소 밤에 靜坐하며 마음을 가다듬

言行의 실수는 夜間靜思의 부족탓

吉 再 <1353~1419>

吉再는 天品이 穎敏하고 淸秀, 어려서부터 슬기로왔다。

부친이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했으나 살림이 넉넉지못해 어린 그는 外家에서 자라게됐다。그리하여 10대이전에 벌써 자기 처지를 詩로 읊는 생각하는 소년이었다。

15세때 부친이 松都에서 딴 살림을 차려 그의 모친이 원망으로 남을 원망하자 「人倫의 變은 옛聖人도 면치못했으니 다만 도리로서 아버님의 마음이 안정되기를 기다리십시오」하고 위로했다한다。

18세에 松都에와 趙德明 李穡 權近등 문하에서 性理學에 심근했다。

威化島回軍후 국운이 기우는것을 연려하

고 첫닭이우는 새벽에 일어나 冠帶를 차리고 사당과 先聖에게 배례를드린다음 제자들과 공부하는 근엄한 생활을 했다。

「세상에 孔子와 같은 人物이 있으면 顔子와같이 마을안에서 스스로 즐길수는 있지만 혹시 때가 맞지 않으면 太公처럼 강가에서 숨어살기도 하는것이니 그러므로 고기를 낚건 반움간전 어찌 그것을 구지람한수 있으랴。

내가 여기 집을 지은지 벌써 10년이 지났다。이름없는 영화로움과 이를 위하는 수고로움을 모두 다 잊고, 피로하면 낮잠자고 즐거우면 詩읊고 다만 해와달이 오가고 시내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것만 볼따름이다」<山家序>

나의 한마디

뚜렷한 指標없이 彷徨하다
하느님의 빛본후 새삶맞아

柳熏錫 <味元弘報部長>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되지도 않은 「삶」속에서 人間의 本質을 깊이 느끼기에는 여러가지 부족된바가 많겠으나 나는 요즈음 나를 포함한 人間의 實體에 대해서 그 微微하고 보잘것 없음을 너무 자주 실감하게 된다。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부닥쳐지는 당은 체험속에서 人間의 無力함에 때로는 나를 담담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게 여과된 상태에서 하느님의 커다란 存在안에 한 微粒子와 같은 위치임을 알고 그저 그 큰뜻에 따라 가리라는 韜晦로 살고있을뿐이다。

때때로 엄습해 오는 짜증과 煩悶, 失望과 挫折을 멀리 털어 버리고 그 커다란 존재안에서 이처럼 지구의 한 부분에 발을 내 딛고 살고있음에 감사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돌리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치지 못했는가를 요즈음절이 깊이 省察하고 있다。年輪과함께 내 자신이 겪어야 했던 많은 변화의 과정속에서 多情한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이웃과 社會一무수한 變換의 수레바퀴 속에서 꼼짝없이 당할수 밖에 없는 온갖 재난과 병고, 죽음…그 뜻 아닌 사태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 가까운 이웃인 우리가 해줄수 있었던게 과연 무엇이었던가? 젊음의 剛氣에서 자신의 무한한 可能性만을 믿고 교만한 자세에서 자신을 과시

이 밝혀하며 헤매다가 거기에서 헤어나게될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빛을 향해 祈求하며 살고 있으니 그저 기쁨 따름이다。한상 따뜻이 포용하며, 안온하게 감싸주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분의 은총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고통과 즐거움, 그 모두를 그 분의 뜻에 맡긴 채 살 수 있는 삶의 行進은 진정 벅찬 경우가 아닐 수 없다。

晴空초대 陶藝展

불교신문사는 창간1주년 기념으로 15일까지 曹溪寺내의 불교회관1층에서 晴空스님초대도예전과 高僧의 禪筆및 禪畵전시회를 열고있다。

이 전시회에는 晴空스님이 지난15년간 만들어낸 茶盞, 화병, 분청사기등 도자기 2백여점과 李性徹宗正과 李西翁스님등 老禪師들의 서화40여점을 전시한다。

1956년 金山寺에서 득도한 晴空스님은 선친에게서 도예를 배웠으며 전남務安에 窯를 갖고 우리고유의 茶文化와 도예를 접목시키는데 기여해왔다。

普門寺 負債16억원 境外재산 처분키로

서울 普門寺의 부채총액이 약16억원, 채권자가 2백93명으로 파악됨에따라 이를 변제하고 사찰운영을 정상화하는방안이 구체화되고있다。

日暎법인이사장, 慧眼총무원장, 徐守山 朴大仁 曺法綜스님등이 총무 재무 교무등 3직을 맡아 종단재기에 온힘을 기울이고있다。

普門寺는 재무변제방안으로 사찰경외재산인 施慈院아파트를 팔려고하나 현재20세대의 무언고 입주자를 보호해야할 입장이라고 밝히고 뜻있는 불자의 독지를 호소하고있다。

流星의 賦 <25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㉘

북한뉴스

킹스·컵蹴球참가자 로동당에 入黨특혜
北傀, 金正日지시

【서울=聯】최근 泰국의 방콕에서 열린 제14회 킹스·컵蹴球대회에서 韓國의 忠義팀에 승리하고 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바있는 北傀축구선수단 일행은 최근 北傀金正日이 그들의 공로를 인정, 모두 北傀로동黨員으로 入黨시키는 특혜를준 사실이 7일 北傀중앙방송에의해 밝혀졌다。

北傀의 紡織생산량 25%가 蘇支援依存

【서울=聯】北傀의 紡織工業이 蘇聯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당초 蘇聯의 기술·설비지원으로건설된 北傀최대의 平壤紡織공장을 비롯한 咸興, 惠山의 紡織공장, 平壤염색공장등 蘇聯의 기술·설비지원으로 건설된 北傀紡織공장들의 織物생산량이 北傀전체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8일 蘇聯관영 모스크바放送이 주장했다。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당신은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카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1-2361~4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두꺼비 안의섭

내년 7개孔 뚫을 예정

7鑛區 7小區 시추결과 관계없이

美자펙스社 4鑛區서 코암社서는 5·7小區

코데코社는 印尼국영社와 공동試錐

印尼 4개孔 國內 3개孔

동자부는 현재 마무리단계에있는 7광구 7소구의 시추결과에 관계없이 내년에 우리나라 대륙붕에서 3개孔을,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역에서 4개孔등 모두7개孔을 뚫을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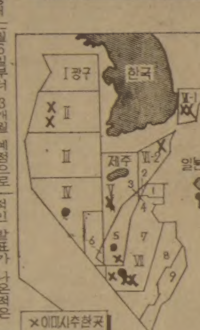
1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따르면 美자펙스社는 지난8월 油開公과 맺은 공동개발 계획에따라 내년 하반기중에 제4광구에서 1개공을 뚫기로 확정됐으며 코암社는 7광구 7소구에서 1개孔을 7광구 5소구에서 1개孔을 각각 뚫을예정이나 日程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것이다。

美자펙스社가 내년에 1개孔을 시추하게되면 지난72년 11월13일 웰社가 6-1광구에서 처음으로 시추한이래 10번째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코데코社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社와의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이미 금년에 彈性波탐사등 物理探査를 마쳐 자료를 분석중에 있는데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4개孔을 뚫을 계획이다。

그런데 코암社가 지난 10월6일부터 3개월 예정으로 뚫고있는 7광구 7소구의시추작업은 그동안 순조롭게진행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증권시장에서 油徵여부에 관한 각종 風聞만 난무하고 있을뿐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적은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시추전문회사들은 현재로선 7광구와 4광구의 地質구조로 보아 油徵가능성이 높다는데대해서는의견을같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전문가들은 産油國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질구조를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름이없는 乾孔인경우가 있으며 기름이 있는지역이라 하더라도 試錐着點의 선정에따라 석유가발견되지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말하고있다。

SUN—LIFE
생명보험..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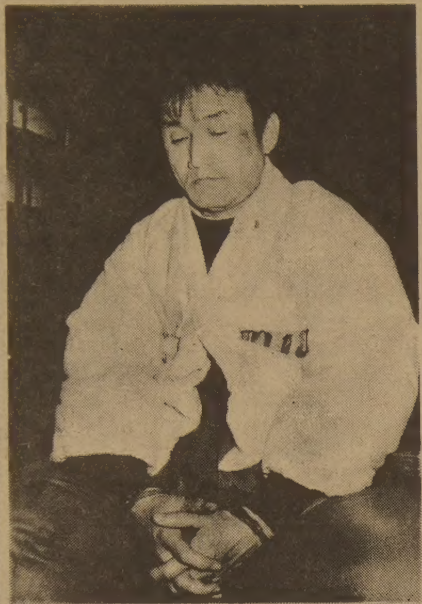
身元조회 기록未備로 民願피해

確定判決내용 누락·紛失많아

海外여행「처리未詳者」에 檢察가서 확인해와야

「수사기록표」不實·様式 불충분 국민·수사기관 모두 不便겪어

신원조회를비롯, 범죄수사에 재판절차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수사자료표 (전과통보서)의 기록이 부실하고 양식도 불충분하다。또 통보 절차에도 문제점이많아 일반국민은 물론 검찰과 경찰이 큰 불편을겪고있어 빨리 개선돼야 할것같다。


◇公判廷의河　첫공판에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전龍山경찰서 河英雄형사。

수사자료표란 경찰이 즉결심판대상자를 제외한 모든형사사건 피의자의 지문을채취하고 범죄경력(전과)을 기록해 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것인데 입건된 피의자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때마다 새로운 전과사실을 검찰이 송치관서를 거쳐 통보해줘 기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통보받은 처분결과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되거나 처분결과가 검찰에서 송치관서를 거쳐 치안본부에 통보되는동안 분실、방치돼 입건사실만 있을뿐 검찰에서 통보된 처분결과는 없는 것이 상당수에 달해 전과조회나 신원조회를 할 경우「처분결과미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허다하다。

이때문에 지난8월부터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서 신원조회를 하려는 국민이 부쩍 늘고있으나 신원조회결과 번번이 처분결과가 미상으로나와 또다른 절차를 밟아야하는 귀찮은 경우가 자주 생기고있다。

검찰로서도 피의자를 기소할것인지 여부와 구형량을 정하는데 필수적인 전과유무및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비치된 사건부를 일일이 찾아봐야하는 번잡과 불편을 겪고있다。

또 올해부터 사회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종 유사한 범죄의 전과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경찰의일손이 더욱 달리고있다。

서울지검 사건과에서 처분결과증명서 (혐의무·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시효소멸)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은 1일평균 약50여명。

이들은 치안본부에 신원조회를 했으나 수사자료표에처분결과가 미상으로나와 검찰에 다시와서 처분결과증명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들이다。

특히 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입건됐던 경찰서에가서 검찰에 송치한날짜와 송치번호를 확인해야하는 2중의 고생을 겪어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위해 지난해12월부터 시행되고있는 刑實效등에관한 법률에따라 70년12월31일이전에작성된「처분결과미상」의 지문 약2백만건은 모두 폐기、무혐의종결처리로 정리했으나 71년이후에 작성된「처분결과미상」지문도 상당수에이르러 국민과 수사기관이 불편을 겪고있는것。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처분결과 미상」으로 돼있는 수사자료표에 대한 일제정리가 필요하다는것이검찰관계자들의 지적이다。또일부에서는일제정리작업이 방대한 인력과시일을 필요로하므로 우선 검찰이 해당사건마다 사건부를확인해 처분결과를 확인한후 해당사건의 처리에만 자료로 사용하지말고 확인된 처분결과를치안본부에 통보해 정리하도록하는 제도나 절차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관계자는「사건처리결정을 위해 전과미상을 확인한 검사가 자신의 사건처리에만 이용할뿐 치안본부에 통보해주는 절차가없어 다른검사가 그후 같은피의자를 처리할때는 다시한번 사건부를 찾아봐야하는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수사자료표의 양식도 개선 대상이다。

처분결과중 기소중지의 경우엔 기소중지사유를 기재하는 난이없어 신원조회증명을 받아야하는국민들의불편이크다。서울지검사건과에서출국허가신청이나 수사재기신청을 접수하려는 민원인은 1일평균 10여명이나되는데 이들은 신원조회결과「기소중지」라고만 기재돼있어 임시로 검찰의 출국허가 결정을받거나 수사를재기해 처분결과를 받기위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위해서는 기소중지사유를 수사자료표에 기재할수있도록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는게 검찰관계자들의 지적했다。【[illegible]기자】

換率 계속 上昇

이달들어 10일에 4원20전이나

12월들어 對美달러환율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급등하고있다。

10일 韓銀은 美달러貨의 집중기준율을 전날보다 60전이 오른 6백94원으로 고시、작년말의 6백59원90전에비해 올들어 모두 34원10전이 올라 5.17%의 상승률을 보였다。

對美달러환율은 지난1일 집중기준율이 6백89원80전에서 10일 6백94원으로 10일간 4원20전이 올라 10일간 0.6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런데 韓銀은 복수통화바스킷制에따라 매일 외국환매매율을 고시하고있으나 국제달러화시장시세와 별 관계없이 12월들어 이같이 對美달러환율이 급등하고 있는것은 지난8월이후 수출신용장내도액이 급격히 줄어 내년1·4분기 수출전망이 어두워진데따른 정부의 정책적인 조정이 가미됐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營養失調에 합병증

保社部 밝혀

大田、釜山지역 영아원어린이들의 연쇄사망은 평소 영양실조상태의 허약아들에게 홍역이나 장염、가성 콜레라、폐렴 심폐부전등 합병증이유발된것을 제때치료않고 방치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10일 보건원역학조사반을 현지에보내 조사한 결과 大田 피얼즈영아원에서 숨진 어린이 12명의 사인은 신장염및 심폐부전이 6명、폐렴 2명、장염 2명、가성콜레라 1명、홍역 1명등이었으며 釜山지역 5개영아원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6명의 사인도 폐렴 1명、뇌성마비 1명、홍역으로인한 합병증때문이 4명인 것으로 각각 판명됐다고 밝혔다。

서울·慶州새마을號 83年엔 浦項까지로

安昌和철도청장은 10일 현재 서울—慶州간을 운행하는「새마을호」를 오는 83년부터 서울—慶州—浦項까지 연장운행하겠다고 밝혔다。

"學園소요때도 休講·휴업말라"

졸업定員、學事경고제 活用

문교부는 9·10일 양일간 忠南大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처·과장회의에서 ▲학도호국단및 학생서클활동 지도방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계획 ▲졸업정원제운영방안등 새학기학원대책에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문교부는 이회의에서『앞으로 학원내에서 소요가 일어난다해도 휴강이나 휴업을 절대하지말고 수업을 정해진 시간표에따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한편、졸업정원제의 실시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하되 가능한 학사경고제를적극적으로 활용해 면학풍토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학생서클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것만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서클을 양성화 해주고 불순한지하서클이 생기지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학도호국단운영방법도 더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수있도록 학생 중심체제로 전환시키라고 말했다。

預金증서 절취是認

河英雄첫公判 "순간적犯行"

서울元曉路 尹景花씨등 일가족 피살사건을수사중 尹씨의 예금증서를 훔친혐의로구속기소됐던 전 서울龍山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河英雄형사(40)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첫공판이 10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2·11호법정에서 제7단독 鄭世泓판사심리로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끝냈다。

이날 공판에서 河피고인은 서울지검 공판부 李相亨검사의 직접 신문에 대해『지난8월18일 尹씨의 유품을 수사본부 관리반으로부터 인계받아 형사계 캐비닛에보관중▲8월27일 당시 金鍾潤수사과장의지시로 유품을 유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정리하다가 문제의 액면5백50만원짜리 정기예금증서 3장이 관리반이 작성한 목록에서 빠진것을 발견、가로챘으나▲9월24일 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채업자 徐國錫씨(49)에게 부탁、제일은행 退溪路지점에서 인출하려 했다』고 진술、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핀란드오픈卓球

한·中·日·스웨덴등 10國참가

【헬싱키10日＝李廷元특파원】제1회 핀란드 오픈탁구선수권대회가 한국을 비롯、中共、스웨덴、日本등 10개국에서 88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11일하오4시(한국시간)핀란드 헬싱키 스포츠홀에서 개막된다。

12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한국은 여자3개팀、남자 2개팀으로 나뉘어 첫날부터 단체전에 출전하고 개인단·복식은 12일부터 열린다。

오는1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대회첫날 한국은 남녀단체전의경우 C팀이 하오4시 中共A팀과 바로 2회전에 들어가고 A팀과 B팀은 각각 A팀과 준준결승전을 갖는다。

中共 선수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칸디나비아 오픈에 출전했던 멤버그대로다。

◇참가국 ▲한국▲中共▲스웨덴▲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日本▲요르단▲핀란드

石油株값하락 指數2포인트빠져

韓·日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제6小區에대한 시추작업이 거의 끝나 금명간 시추선이 이해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면서 10일 證市에서 주가가 크게떨어졌다。

이날 石油株등 石油化學株가 일제히 하종가로떨어진것을 비롯、주력주인 건설주도 약세를 면치못했다。

이에따라 종합주가지수도 최근들어 가장큰 낙폭인 2포인트 이상이 떨어졌다。

그러나 拒來量은 저가를 겨냥한 매입세가 일어 거래는 비교적 활발했다。

在所者에 어머니修女

人權기념일 대통령 표창받은 崔南順수녀

死刑囚도 하느님의 아들로…奉仕15년

◇ 대통령표창을받은 崔南順수녀。

비록 깊은 주름살은 안패었지만 사회에서 버림받은자들에게 펴온 사랑의 손길과 헌신한 모습은「테레사수녀」를 방불케한다。

10일世宗문화회관별관에서 열린 제33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원」(서울城北區貞陵洞山1의15) 崔南順수녀(43)가바로그사람。

악의 유혹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수많은 재소자들을 가톨릭에귀의시켜희망과 재기의 힘을 줘왔기때문에「재소자 인권의 어머니」로 불리기도한다。

수상소식을 전해들던 순간 崔수녀는 자신이 세례를 줘하느님의 아들로서 평안히눈감게 한 3명의 사형수를 뇌리에 그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李베드로、金요한、李율리아나。

凶惡의 돈때문에 타락한 남편이 미워서 순간의 살인을 저질렀던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 곁으로 돌아갈때 꽃보다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자신들의 안구와 신장을 그에게 맡겨 다른 사람의 빛과 건강을 밝혔다。

이때문에 사형폐지론자가 된 崔수녀는『하느님도 용서했는데 국가와 사회가 용서안하는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일흔번까지용서하라』『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것이 그의 좌우명。

崔수녀가 처음 교도소와구치소에서 전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67년 부산 東大新洞성당의 전교수녀로 있을때 재소자들을 포교대상으로 정한것은『예수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온게 아니라죄인을 부르러왔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후 馬山、東萊、서울貞陵성당을 거쳐 자신의 수녀원에 오기까지 오직 재소자들의 교화교정에 반평생을불살랐다。

지금까지 그가 영세를 준 재소자는 1천여명。그가 주도하는 소내 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는 수를 헤아릴수가 없다。

지금도 서울의 5개 구치소와 교도소를 돌며 전교활동을 펴고 재소자들의 구원에 힘쓰는것이 하루 일의 전부다。

재소자포교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도소내 작업등 자체 일정때문에 재소자들이 집회에 고정적으로 참석하지못하는것。그러나『씨뿌린자 따로 있고 거두는자 따로있다』는 믿음속에 자신의 집회에 참석못해도 누군가에의해 열매는 거둬질것으로 믿고있다。

재소자들에게 일일이 교리책과 묵주를 사줄수 없는것도 가슴아픈일。

이때문에 그는 한번도 택시를 타본적이없다。한푼이라도 절약하기위해서다。

고교2학년때 누구의 전교도없이 스스로 깨닫고 가톨릭에 귀의한것이나 成大국문과 2년을 중퇴하고 수녀가된것 모두가 신의 섭리로 생각、남은 반평생도「하느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것이 소망이다。

좀더 현실적인 바람이있다면 백내장으로 실명직전에있는 永登浦구치소 재소자 오순무씨(46)의 수술비를 도와줄 독지가를 구하는 일이라고할 만큼 그의 생활은 온통 사회에서 버림받은 재소자들의 인권보호와 [illegible] 하고 있다。【[illegible]기자】

새倫理 확립시급

儒林궐기大會 師道 각성등 촉구

成均館(관장 李載瑞)유림대표 4백여명은 10일상오10시30분 서울鍾路區明倫洞成均館 유림회관에서 潤相군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실추된 사도(師道)와 관련、새윤리관확립을 위한 윤리선언실천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유림들은 사회가 물질문명에 젖어 윤리와 도의가 극도로 퇴폐돼 비리와 불상사가 날로 증가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유괴·살해한 사건은 있을수없는일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上映중지

「都市로간處女」

한국노총(위원장 鄭漢株)은 9일 서울C극장에서 상영중인영화「도시로간처녀」가 운전기사와 안내양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퇴폐적인 내용이라고 주장、상영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문공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중앙극장측은 이영화의 상영을 11일부터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외된 弱者에도 權利를"

人權선언일 兪대법원장 기념사

兪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오늘날의 인권은 근대민주주의 초기단계의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인권개념에서 적극적이고 협동적인 조화된 인권개념으로 그 의미가 넓혀졌다』고 전제、『현실적으로는 차별되고 소외되는 약자들도 모두 존귀한 인격체로서 생존과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고유권리를 누려야할것』이라고 말했다。

10일은 제33회 세계인권선언일。

이날 상오10시 서울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는 兪泰興대법원장 南悳祐국무총리 李鐘元법무부장관 金永均법제처장 金淑鉉국회법사위원장 許亨九검찰총장 金斗鉉대한변협회장등 관계인사와 공무원 학생 일반시민등1천5백여명이참석、기념식을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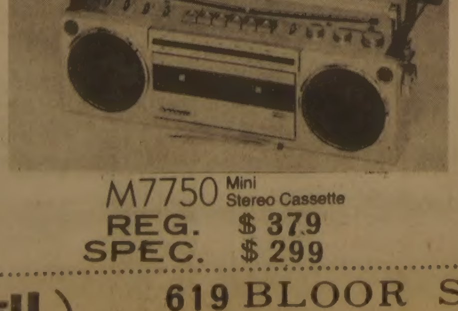
장례사 일도 해보시죠
【김민자 · 서울마포구도화 2 동428】

크리스마스 특별세일

SANYO
VIDEO CASSETTE RECORDERS
PORTABLE AM/FM STEREC

M9921 AM/FM Stereo Cassette
단파 SPEC. $199

비데오 SPEC. $799


M7750 Mini Stereo Cassette
REG. $379
SPEC. $299

킴스카메라·트로피(감사패)
619 BLOOR ST.W. TORONTO
전화 : 534—1085　대표 : 김춘탁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284-3031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431-4474, 439-4885(MR. 김)

● 오토바디샾에서 일할 경력있는 사람구함 좋은 보수와 우대함(남자 2~3names)
● 사무일보실 여자분 구함. (1명)
B)533-8507~8
R)439-6548(Mr. 리)

성실하게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QUEEN ST. E.
☎: 466-3995

도나스샾에서 6일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밤11시~아침9시) 스카보로지역
☎: 284-9325(Mrs. 남)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783-0683
536-5914(밤9시이후)Mrs. 하

파타임 헬퍼구함
3261 DUNDAS ST. W.
☎: 769-5956

● 도넛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 8시~오후4시(풀타임)
토, 일 아침8시~오후4시(파트타임)
●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 531-2689

매매및 양도

STORE FOR LEASE
NEW NEIGHBOUR HOOD PLAZA
IN GEORGE TOWN ☎: 749-8661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매네저 혹은 후렌차이스도 가능함.
☎: 624-5817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투자의 기회
브라말리아 에있는 메트로 토론토 북서쪽 100 에이커의 땅. 오락센터와 고등학교에 근접해 있음. 현재 발전지 로부터 2마일 거리에 있음.
☎: 636-0963(6PM이후 연락바람)에이젠트 원치않음.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656-7753

이상적인 가족 비지네스(H·SALT 휘시 & 칩스, 휘트비)
그로스 : $2160/W 네트 : $930/W 아스킹 $60000
☎: 683-7777(앤디·밴도라)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최소3번	1주5번
C-1(1칸)	.5"×4"	$10	$13
C-2(2칸)	1"×4"	$20	$26
C-3(3칸)	1.5×4"	$30.	$39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 533-2361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3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김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533-2364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98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665-5600
97 NORFINCH DRIVE, DOWNSVIEW.

양장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화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추리냉동 원종성, 이인식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4BED ROOM 월 $500(PHARMACY × 세퍼드)
☎: 757-6334(오후6시이후)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여행사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51-9324(B)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정은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465-8167 (MR. 김, MR. 곽)

한방원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상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273-7300

R.I.A. 김인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순 탁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274-4323
50 BLOOR ST. W. ☎: 967-7121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필요할만 합니다.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ZAP SUREKILLER ☎: 36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8-2120 조 혜 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바다에서 플룻을 <1>

梁順錫 作
金鈴 畵

고속버스 매표소의 반달형 창구에 돈을 들이밀며 행선지를 말할 때의 내 목소리는 이 여행에 어떤 기대도 갖지 않겠다는 단호한 건조무였다. 한 손에 티킷을 받아쥐고 한 손에는 자동판매기에서 빼온 코피를 들고 버스에 올라 지정된 좌석을 찾으로 가능할 때까지만해도 그랬다.

코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버스의 좁다란 통로를 걸어 내 자리쯤 되겠거니 싶은 곳에 멈춰섰을 때였다. 한 남자가 통로 쪽의 자리를 비워놓고 앉아있다가 나를 보더니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다. 크지 않은 체구에 빗질이 닿지 않은 고수머리, 곱게이 두드러진 얼굴, 패인 두눈, 시린 인상의 남자였다.

『창쪽에 앉으시겠읍니까?』

내가 목례로 답하자 그가 몸을 통로쪽으로 물러앉았다. 애써 가지려 해도 찾아주지 않던 짜릿한 느낌이, 몸을 가슴으로 던져졌다. 자리에 앉았다.

차는 육중한 몸을 한번 뒤채더니 점도에 오른 말처럼 서서히 약진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잠깐, 내 옆자리에 앉은 남자와 함께 이 여행을 하기로 약속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또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끈질긴 갈증에의 욕구도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더욱 절실한 욕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찬찬하고 시린 얼굴로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쫓어야 마땅한 일상적인 경계심조차 저 일상의 거리인 도시에 던지고 떠났던것이다. 참으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여자의 가슴에 닫치않세 파문이 일었다.

『네, 바다에 가요』

『혼자서?』

『그래요. 바다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닌가요? 어디로 가시나요?』

『바다』

『혼자?』

살고있던 자리로부터의 떠남이 설혹구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마치 마 카드였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내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애정이랄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떠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는 어떤 계산이나 이기성을 넘어선 순수함에서 연유하지 않았을까.

저물어가는 한 해의 갑자락에서, 어느날 들른 서점의 캐럴소리는 나의 등을 떠밀었다. "떠나거라, 이 허황된 도시를, 떠나, 떠나라니까."

끝내 떠나지 않고서 바랄던 정신의 변화는 도달할 수 없는 섬(城)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떠난다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행위였지만 오랜 망설임 끝에 시행될 수 있었다.

「갈등」

아서 음미하리라면 코피는 이제 식어버린 채 잔에서 분리된 입자만이 갈색 앙금이 되어 침전해 가라앉고 있으리라. 저 일상의 휘어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모두 증발해 버리고 단 하나의 확실한 표정만이 돌출하듯이.

「바다에 가십니까?」

그는 갈등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라고 말했다.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바다 외에서는 찾지 않았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언어인 것처럼 은밀하고 다분히 환상적이었는데 그가 바다라고 말하자 나는 내 환상이 파괴되는 느낌과는 다르게 그가 내 환상에 은밀히 가담하는 것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한 여행에 뜻하지 않은 침입자를 만난 것같은 불투명한 느낌이 갈등의 싹이 되고 있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